

주간 증시 포커스

美 점진적 금리인상 시사
2분기 실적 전망도 밝아
완만한 상승세 이어갈 듯

코스피지수가 지난 13일 사상 처음 2400선(종가기준)을 돌파했고 14일 2414.63포인트로 마감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발언이 이머징국가로 글로벌자금의 추가적인 이동 가능성을 높였고 2400선 돌파의 기폭제가 됐다. 13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추경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할 것도 상승에 기여했다. 미국 다우지수와 S&P500 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에만 20원 이상 하락하며 외국인투자자가 4일 연속(4일간 1조 2000억원) 순매수한 것이 코스피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시장주도주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삼성전자를 핵심으로 IT업종과 하반기 금리상승수혜가 예상되는 은행 보험, 그리고 하반기 40달러대에서 유가안정이 기대되며 화학 철강 등 소재업종이 합류하는 모습이다.

반면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간 격차는 사상최대치로 벌어졌다. 지난주에도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지수에 비해 코스닥지수는 기관순매도가 13일째 지속되며 650선 중반으로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올해만 10조원이 넘는 외국인 순매수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유동성 확대와 삼성전자 등 수출관련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은 제약주와 중국관련산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사드사태 장기화와 기관투자자의 지속적인 순매도가 수급불안으로 이어지며 좀처럼 상승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 7월에도 삼성전자와 금융주의 시장 주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스닥시장의 소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은 3분기 코스피지수를 2380~2510포인트(PER 9.3~10.0배 수준)로 전망하고 있다. 상반기 18%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2400선을 넘은 것을 고려하면 코스닥지수 상승세가 완만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지수의 상승세에 걸림돌이 될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유가는 40달러선에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신용불안도 중국정부의 통제가능성에 있다고 판단된다. 6월 FOMC 회의에서 하반기 한 차례 금리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병행을 예고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장예측 가능성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한국의 금리인상은 빨라 내년 상반기경도로 예상되어 양국의 금리인상과 한미간 금리역전현상은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이 유동성공급 정책을 지속했는데 과도하게 확대된 연준의 자산축소는 1년 차 3000억달러(월 250억달러), 2년차부터 6000억달러(월 500억달러)를 예고했다. 자산 축소 규모는 확정했지만 축소 시기는 결정하지 못했다. 미국 연준은 1994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2004년부터 시작된 금리인상에서는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완만한 정책으로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2018~2021년 자산 축소 진행 시 월평균 축소 규모는 438억달러로 예상되는데 자산축소규모가 시장이 감내할 정도로 적정하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연준의 자산축소는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는 8월에는 시장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소비도 선물도 외면받는 한우... 축산농가 '시름'

높은 가격 탓 선호도 돼지고기보다 낮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 위축도 큰 영향

한우자조금관리위 보고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늘여가고 있지만 한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지역 축산농가들의 시름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2016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통 선호도는 ▲돼지고기 46.5% ▲한우고기 32.4% ▲닭고기 9.0% 순이었다.

지난 2013~2014년 연속 육류 선호도 1위를 지켰던 한우가 2015년부터 돼지고기에 그 자리를 내어준 셈이다. '한우고기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5년 35.4%에서 지난해 32.4%로 3%포인트 감소했다.

향후 소비전망도 2014년 한우고기 31.0%, 호주산 쇠고기 28.0%, 돼지고기 20.0%에서 2016년 국내산 돼지고기 31.9%, 미국산 쇠고기 23.4%, 호주산 쇠고기 20.6%로 파악됐다. 한우의 입지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경제불황에 한우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가격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 비율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우고기 가격에 대한 만족도지수는 2014년 39.0에서 2016년 32.2로 낮아졌다.

여기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한우 소비 위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추석 거래처 등 지인에게 한우고기를 선물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가구는 7.4%에 불과했고, 92.6%는 아예 한우 선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에도 선물 의향이 있는 가구는 8.9%였고, 전혀 의향이 없는 소비자도 74.6%에 달했다.

이처럼 한우가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 입지가 좁아지자 소비자들도 비싼 한우 대신 수입산 쇠고기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는 얼리지 않고 수입된 냉장쇠고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광주지역 5개 이마트의 유통판매 비율을 살펴본 결과 한우의 판매율은 2015년 30.1%에서 올해 7월 현재 27.5%로 감소한 반면, 미국산 쇠고기는 17.1%에서 25.3%로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단일 품목 중 가장 많이 수입한 것도 쇠고기로, 지난해 수입 규모는 10억35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1~5월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48.4%까지 높아지면서 호주산(42.8%)을 앞지른 상태다.

중도매인과 식육판매업체 등 관계자들은 "한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가격을 낮춰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유통구조 개선 등 한우 공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농식품 수출확대 모색 농협 전남본부, 전략회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복)는 지난 14일 전남지역 40개 수출농협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전남농식품 수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승한 관세사 관세법인 '선술'과 강수민 무역보험공사를 초청해 'FTA활용 수출확대 교육과 무역 수출보험제도'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으며, 김진호 NH농협무역 호남사무소장의 강연 'NH농협무역 수출동향 및 활성화 방안'이 이어졌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어촌특화센터, 해남 전북농자업체 현장 클리닉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과는 최근 해남군 화산면 전북농자업체 2곳을 찾아 현장 클리닉에 나섰다. <사진>

16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과에 따르면 노한성 팀장, 선승천·정병길 연구사, 김도기 자원위원(전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장) 등 전북연구팀이 지난 11일 해남군 솔지수

산, 서명수산을 찾았다. 이들은 업체 내 양식장의 해수 분석을 (주)연안관리기술연구소, 경영분석을 (주)정앤서에서 각각 의뢰하는 한편 전북 지 패 먹이생물인 구조류가 파판(PET 재질의 판)에 잘 부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사진=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과 제공



전남어촌특화센터·보성 석간어촌계, 간석지 활용 논의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지난 11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에서 오숙자 어촌계장 등 보성 석간어촌계 관계자, 추연동 장흥지원장 등과 함께 보성 석간 어촌계 소유 33ha에 이르는 간석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장흥지원장은 석간어촌계의 요청에 따라 간석

지 실태조사를 벌여 가장 적합한 패류를 선정해 보성군에 추천하기로 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보성군과 협의해 석간어촌계 간석지에 종패를 뿌려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천3백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웅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65억 근린시설 스포츠타운 최적합
- ★ [토지] 광산구 송정역(KTX) 인근대로변 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관광호텔주변 카페거리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서구 풍암동 녹지지역 임야26,139㎡ 매매 평당7만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10억 조정가능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62-714-2254